

주일가정예배

[성청주일]

2023년 3월 5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시34:8~9)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를 크신 팔로 품어주시고, 피곤한 육체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영혼에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539장 다같이

1.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2.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네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3.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네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네 마른 목축이어라
 4.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 (후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디모데전서 6장 17-91절 인도자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설 교 『 베푸는 삶 』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새로운 해에 이 나라와 민족이 주의 영광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3.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터키)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4. 헌금안내 :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베푸는 삶

디모데전서 6:17-19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다윗 일행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자다. 몽진 길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고 생각한 그는 다윗과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다. 소용돌이가 끝나 환궁할 때, 다윗이 호의를 베풀려 하자 그는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잊지 않고 있다가 임종 때 솔로몬에게 바르실래 가족을 성심껏 돌보라는 유언을 남겼다. 바르실래의 베품이 어떻게 돌아왔는가? 베푸는 삶은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낮은 수준의 행복은 소유함에서 오지만, 높은 수준의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 인생의 큰 그림은 나눔이 없이는 완성되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나눔이 없다. 식량 공급은 넘치지만, 세계 인구 절반이 굶고 있다. ▶애덤 그랜트는 『기브앤테이크』에서 배려하고 양보하는 착한 사람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깨면서,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일갈한다. 오직 받기만 하는 테이커들(takers)은 타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사람들을 불신과 의혹으로 대하기에 타인의 발전을 제한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보는 기버들(givers)은 타인이 가진 최고의 능력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고 이런 태도는 결국 좋은 결과로 나타난다. 거래 시에도 주는 자는 원원의 길을 찾으면서 상호 유익을 얻도록 한다. 밥 버그와 존 데이비 만의 『기버』에서도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5가지 원칙’을 제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에게 얼마나 많은 가치를 주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주고 주고 또 주는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6:38). 일립만배(一粒萬倍)라는 말은 ‘한 톨의 볍씨를 뿌리면 만 톨의 쌀이 된다’는 말이다. 작은 것도 쌓이면 많게 된다. 베품과 나눔은 장래의 씨앗을 뿌리는 것으로 최소 30배로부터 60배와 100배에 이른다. 구제할 때는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베푸는 자인가? 역설적이게도 성경에 보면 소유가 적은 자들이 많이 베푼다.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 두 렵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 옥합을 깨트린 여인 등.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떡 반죽으로 엘리야를 공궤했다가 큰 복을 받았다. 과부는 약간의 가루와 기름을 베품으로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편의를 봐주었더니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고대 중동에는 환대(hospitality) 풍습이 있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부지불식간에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복을 받았다. 보아스는 아름다운 롯을 아내로 맞았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 작은 자를 돌보는 환대가 최후의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부자들은 잘 나누지 않는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적 생명만 추구하다 그날 밤에 영혼이 세상을 떠나게 되기도 한다. 모든 소유가 자신의 통제 아래 있고, 물질이 안전을 보장하고, 행복을 가져오리라고 착각에 빠진 자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할지를 경고하고 가르치라고 한다.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행과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촉구한다. 이것이 장래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다. 무엇을 베풀까? 자기가 소유한 것 즉 재물, 시간, 재능, 관심, 영향력, 지식, 사랑 등을 주면 된다. 이렇게 나눌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유무상통의 기적이 일어난다.